

희망의 미래를 그리며



정 상 훈

- 월간 고시계 발행인
- 도서출판 고시계사 대표
- 법무경영교육원 원장

나라에 대통령 탄핵을 비롯한 많은 불행한 사건들로 점철된 2016년 丙申年을 뒤로 하고, 대망의 2017년 붉은 닭띠의 해인 丁酉年의 아침이 밝았습니다.

며칠이 지나면 제6회 변호사시험이 치러지며, 2월에 실시되는 2017년도 사법시험 실시 계획은 아직 미정인 상태입니다. 많은 국민들은 사법시험을 합격한 사법연수원 출신 법조인과 변호사시험을 통한 법조인이 서로 경쟁하는 투트랙으로 이루어지길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로스쿨제도가 시행된지도 8년이 흘렀고, 여러가지 우여곡절 속에서도 나름대로의 제도 도입 취지를 살려 순기능을 발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여전히 로스쿨 제도의 문제점을 들어 이를 비판하고 기존의 사법시험 내지는 예비시험을 도입하자는 목소리 또한 끊이지 않고 주장되고 있습니다. 2017년 1월에 실시되는 제49회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선거에 출마한 두 분의 후보들조차 경제적인 어려움 등으로 로스쿨에 입학하지 못한 사람들이 예비시험이나 사법시험 존치를 통해서 법조인이 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는 데에 큰 이견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국회에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이외에 법조인이 되는 길을 터줘야 한다는 취지로 마련된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016년도에 5건이나 발의된 것도 모두 "돈 없는 사람이 법조인이 되기 어렵다"는 로스쿨 제도의 문제점에서 출발한 것이다. 이들 의원들의 발

의 역시 사법시험준치가 헌법정신에 부합하는 기회 균등의 법조인 선발제도라고 보기 때문
입니다.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오늘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분야에서 커다란 변화의 흐름 속에
서 미래 법조인들이 몸담게 될 법률시장은 크고 작은 수많은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현재
국내 변호사수가 2만여 명에 달하고 있지만, 매년 2,000명 이상의 변호사가 지속적으로 배
출될 경우 조만간 법률시장이 포화상태에 이르게 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경우 법률시장은 그 동안 공급자 중심의 모델에서 수요자 중심의 모델로 전환이 이루어
지게 될 것입니다. 포화상태에 이른 법률시장에서 어떠한 형태로든 변호사들 간의 능력의
격차는 실제로 존재할 수밖에 없고, 변호사 간의 이른 바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심화될 것
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법조인들은 보다 낮은 자세로 다양한 방면의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우리 사
회 곳곳에 스며들어 복잡다기한 우리 사회의 법률문제를 해결하는 데 기여할 수 있어야 함
니다. 이들이 국내적으로 공적 영역에서 법치행정, 사적 영역에서 준법경영, 그리고 공익 분
야에서 묵묵히 헌신하고 우리 국민들의 따뜻한 벼이 되어 줄 때, 법조인들은 법률서비스 수
요자인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새로운 시대의 법조인은 종래 권위주의 시대
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는 하루 아침의 입신양명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용'을 지향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이러한 시대적 변화와 혁신의 시기에 月刊『考試界』가 맡아야 하는 역할은 더욱 중
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月刊『考試界』가 2017년도에 창간 62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미래 법
조인인 우리 수험생들에게 전문적인 법률지식 뿐만 아니라 정확한 수험정보를 제공하고, 나
아갈 방향을 제시해 주는 법률전문지로서 계속 발전하여 줄 것을 기대합니다. 2017년 한 해
는 부디 국가나 사회 각계각층의 구성원들의 가슴속에만 간직해둔 각기의 희망과 꿈이 현실
적으로 영글어 가는 한 해가 되길 희망해 봅니다.